

보도시점 2026. 9. 14.(월) 배포 시 배포 2026. 9. 14.(월) 17:00

농식품부, 추석 성수품 공급 안정에 총력

- 물가책임관(차관) 주재 추석 민생안정대책 추진상황 및 수급동향 점검회의 개최
- 추석 성수품 계획 대비 109.1% 공급, 추석 성수기까지 안정적 공급 지속
- 반값 상차림 등 추가 할인행사로 소비자 물가 부담 완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9월 14일(월)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종구 차관 주재로 추석 민생안정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농식품부는 지난 9월 1일(화) 풍성한 추석, 즐거운 추석, 안전한 추석을 주요 골자로 하는 「농업·농촌분야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였다. 이후 추석 물가 및 수급상황을 지속 점검하면서, 국민의 물가 부담을 더욱 낮추기 위해 정부와 농협의 가용재원을 추가로 투입하여 상차림 품목 등에 대한 할인 확대 등 대책을 보완하였다.

성수품 공급상황을 점검한 결과, 13대 성수품은 계획보다 초과한 109.1%를 공급 중이며, 주요 품목별 공급도 전반적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은 농산물의 경우 대체로 안정적이나, 생산량이 감소한 마늘과 일조량 감소로 출하량이 줄어든 애호박은 다소 높은 수준이다. 애호박은 최근 기상여건이 호전되면서 출하량도 빠르게 증가하고 도매가격이 하락세로 전환됨에 따라 추석 성수품 구매가 활발해지는 이번 주 중부터는 가격도 안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늘은 비축물량을 활용하여 공급량을 확대하고 있다.

축산물은 사육 마릿수 감소와 가축전염병 등 영향으로 가격이 다소 높은 수준이나, 도축장 주말 운영, 계통출하 물량 확대 등을 통해 공급을 최대한 확대하고 있다. 계란은 공급 확대와 함께 신선란 수입·공급도 지속하여 수급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한편, 농식품부는 추석 성수품에 대한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할인 지원 규모와 기간을 대폭 확대하였다. 당초 590억 원 규모였던 할인 지원을 1,490억 원으로 확대하고, 지원 기간도 9월 23일까지에서 9월 30일까지로 연장하였다. 이에 따라 유통업체 등 4,000여 개소에서 성수품 및 가격 상승 품목을 최대 40% 할인하는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20개 식품기업에서도 추식에 수요가 늘어나는 4,765개 품목에 대해 최대 64% 자체 할인을 진행 중이다.

특히, 한우는 지난해보다 사육 마릿수가 감소하면서 가격이 높은 수준인 만큼, 자조금을 활용하여 대형마트 등을 중심으로 9월 12일부터 24일까지 집중 할인 행사를 추진한다.

또한, 이번 주부터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9. 16.~9. 20.)가 시작되고, 농협 등에서 반값 상차림 할인 행사도 본격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소비자의 명절 상차림 부담을 보다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추석까지 성수품 공급 및 가격 상황을 매일 점검하고, 수급 불안 우려 품목에 대해서는 가용 물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적기에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할인 지원 등 소비자 부담 완화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이 할인 행사와 알뜰 구매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적극 제공할 예정이다.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성수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있지만, 기상 여건 변화에 따라 일부 품목의 수급 변동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산지 농협 등 관계 기관에서는 출하 관리를 더욱 철저하게 해 달라”고 주문하면서, “대규모 할인 지원과 반값 상차림 행사 등을 소비자가 충분히 체감할 수 있도록 유통업체 등에서도 성수품에 대한 할인 지원을 적극 강화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담당 부서	유통소비정책관 농식품시장관리과	책임자	과 장 김성만 (044-201-2681)
		담당자	사무관 황수지 (044-201-2682)
		담당자	주무관 유아름 (044-201-2688)